

2021 지구촌교회

가정예배순서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전람!  
Sharing Jesus!



VOL.9  
2021 11-12

##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0 2 1 지 구 촌 교 회  
가 정 예 배 순 서 지

# 구원받은 롯의 가정



##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 복음성가

지121장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12-28

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던더라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더라 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1.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에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서둘러 피신시킵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는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롯은 꾸물거리며 지체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끌며 성 밖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냅니다. 롯의 망설임으로 하마터면 온 가족이 목숨을 잃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을 보존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임박한 심판 앞에 놓여진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롯과 같이 세상을 향한 미련으로 지체하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누군가의 중보기도와 더불어 예수님의 자비와 강권적인 이끄심 때문입니다.

2.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소돔에 두고 온 것들을 아쉬워하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 선택한 주님의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걷는 믿음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 똑같은 실수를 범한 아브라함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복음성가

지 504장  
항상 진실케

0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0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0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0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0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0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08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0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었노라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 사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단으셨음이라



1. 아브라함은 후대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십 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사람이어도 같은 문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을 범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 아내 사 را를 여동생으로 속였던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똑같은 거짓말을 하여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를 자초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크게 책망했는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자신이 죽임 당할 것 같아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변명이고, 착각이었습니다. 정작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종들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을 대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신의 방법을 취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여정이 아직 남아있고, 온전한 믿음의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계속 다듬어가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합니다.

2.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아비멜렉이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사 را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지칭하여 '선지자'라 말씀하셨고, 이 표현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모습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내려진 '모든 태를 단으신 심판'이 거두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가운데 자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선지자의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생각과 성품, 그리고 믿음을 온전히 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다듬어주시기 바라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 이삭의 탄생



찬송가

54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복음성가

지 339장  
주님 말씀하시면

- 0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  
라에게 행하셨으므로
- 0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  
들을 낳으니
- 0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 0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  
였더라
- 0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 0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  
로다
- 0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  
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1.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상반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 21절에서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완벽함을 보이셨습니다. 우릴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듯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2. 이삭을 얻게 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태어난지 팔 일 만에 아이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생아 할례 장면이 이삭의 할례입니다. 신생아의 할례가 안전한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성경말씀이 있나요?
3.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는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할까요?

# 하갈과 이스마엘



##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 복음성가

지 442장  
내 갈급함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8-21

- 0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 09 사라가 본족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 내를 얻어 주었더라



1.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노년에 이삭을 낳은 사라는 평소 못마땅하게 여기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 이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 물이 떨어져 마주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는 하갈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해주시고는, 샘물을 만나 해결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악함까지도 사 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갈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눈물만 떨구던 적이 있었는지 나누어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봅시다.

# 배척당하신 예수님



##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 복음성가

지 334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16-30

-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 20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 2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 22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가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 24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 25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 26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 27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 28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 29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 30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1.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와 여러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고향 나사렛에 도착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며, 이 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61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오랜 비전이 현실로 실현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천년 전 예수께서 이루셨던 희년의 비전과 사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 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은혜롭고 놀라웠지만, 고향 사람들은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미심쩍어 합니다. 게다가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에 격분한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위협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 사명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언제나 멸시와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막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또한 반드시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해 봅시다.

#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복음성가

지 291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1-10

- 01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 02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 0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 0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 0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 0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 0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 0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 09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 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노력을 다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을 기억하며 배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매우 의도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발걸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네사렛 호숫가의 배 두 척을 보셨고, 그 중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 요청하시며 거기 앉으셨습니다. 또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만선(滿船)을 경험하며 비로소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심한 열병을 깨끗이 낫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눅 4:38-39). 이렇듯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2.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밤샘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재차 그물을 신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너머에 계신 전능자를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존재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한 일이 있나요?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 나를 따라 오라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성가

지 66장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18-22

- 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 22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 갈릴리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이후 그물을 잡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 어촌 이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갖고 있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2.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낚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런 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영광스런 부르심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제자들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직장과 부모까지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고, 세상의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을 따르기에 소중한 것을 버린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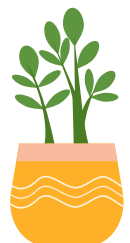
복음성가

지 143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5-11

- 0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0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
- 0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0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09 이렇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높임을 받으려 하시기 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러한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2.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한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한마음을 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면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한편 주님의 겸손을 배워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겸손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의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 가정 예배가 부모에게 끼치는 영향



모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일은 전적으로 가장의 책임입니다. 물론 남편을 여의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혹은 장남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불변의 질서에 따라 예배를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히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가장은 가정 예배가 지루하고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가족은 아버지의 영적 지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여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가족에게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이 땅에 파놓으신 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가족 앞에서 성경을 펼쳐 든 성경교사이자 목자입니다. 때로 아버지들은 세상에서의 삶과의 괴리감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 부끄러울 수 있기에 항상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방어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대신 중보했습니다.

[욥1: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most of the page width.

A few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locat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아내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며 기도와 사랑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소서! 이 세상의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소서! 남편과 자녀를 섬길 때 성령의 풍성한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말씀과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찬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녀이름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이름을 택하사 자녀이름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이름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3-5절]



선하신 주님!! 사랑하는 자녀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라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 자녀이름이 어디에 가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사랑의 주님!  
제게 최고의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건강을 주시고 에녹과 같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픔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